별 첨

모두 발언

’26. 11. 26. (목) 10:00

금융위원장
이 억 원

※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된 자료로 실제 모두 발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Ⅰ 인사말씀

안녕하십니까
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.

바쁘신 일정 가운데
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
금융권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지난 1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시작한 이후
금융의 문턱을 **낮추고**
금리 부담은 **완화**하며,
연체 채무자의 **재기를 지원**하기 위해
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.

그 결과
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
이제 중요한 것은 포용금융을
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
지속적으로 **이어갈 수 있는 구조**로
만드는 것입니다.

오늘 회의를 통해
포용금융이 **금융시스템 안에 확고하게**
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
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.

II 포용금융 대전환 효과

올해, **금리 상승** 여파로
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금융여건이
더욱 어려워졌지만,
포용금융의 **발걸음**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

<u>먼저, **포용금융 공급이 확대**되었습니다.</u>
5대 금융지주는 **2분기**까지
약 14조원을 **포용금융**에 **집행**하였으며,
은행권의 **새희망홀씨 대출**[1]과 **사회공헌 실적**[2]
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.

* 1) '26.3Q 기준 4.1조원('25년도 실적 4.0조원을 상회)
2) '26.2Q 기준 잠정1.2조원('25년도 연간 실적의 약 60% 수준)

<u>**금융취약계층**의 **금융 접근성은 개선**되고
금리부담은 줄고 있습니다.</u>
저신용자의 **신용대출 잔액**[1]이 늘어난 가운데
평균금리[2]는 **오히려 하락**하였으며,
다양한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도
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.

◈ 가계신용대출 현황('26.3월말→'26.7월말, 全 업권 합산 1,693만 차주 대상, 신정원)
1) **저신용자**만 **신용대출 잔액**이 **증가**: '26.3월말 83.1조원 → '26.7월말 84.1조원
2) 금리 상승에도, **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**만 **대부분 업권**에서 **하락**(은행 0.05%p ~ 저은 0.27%p)

<u>**연체 채무자**의 **경제적 재기**를 위한 **지원도 확대**하였습니다.</u>
금융권에서는 '26년 상반기에만
연체채권 35.5만건, 1.6조를 **정리**(채권 소각)하였으며,
34.1만건, 13.9조원에 대해서는
채무조정으로 **지원**하였습니다.

Ⅲ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과제

이제는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를 넘어
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을
구축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.

첫째, **금융회사 간 협업**으로
포용금융 공급기반을 넓히겠습니다.

은행의 **낮은 조달비용**과
저축은행의 **중·저신용자 심사역량**을 **결합한**
「포용 온렌딩 대출」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.

금융회사와 **차주 모두가**
함께 이익을 얻는 수 있는 **상생 구조**로

은행은 **직접 대출**하는 경우에 비해
채권 관리비용과 자본부담*을 **덜 수 있고,**

* 개별 취약차주에 비해 저축은행의 위험가중치(RW)가 낮음

저축은행은 **조달비용**을 **절감**하여
중·저신용자 대출금리를
상당 수준(300~500bp) **낮출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됩니다.

둘째, **투명하고 합리적인**
연체채권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.

포용금융이 대출을 공급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.
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
금융회사의 **책임 있는 채권관리**를 통해
연체 채무자의 **경제적 재기**를 **지원**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이를 위해 금융권의 **'26년 상반기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오늘부터 최초로 공시**하고,

각 업권별 **채무조정 여신**에 대한
건전성 분류기준을 **합리화***하여
채무조정을 **더욱 촉진**시켜 나가겠습니다.

* (공통) 자체 채무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 요건 완화
(카드) 연체 이전 채무조정시 정상채권으로 분류(현재는 요주의채권으로 분류)

셋째, **포용금융이 지속**될 수 있도록
건전성 규제를 **합리화**하겠습니다.

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
원칙은 지켜나가면서,
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
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소상공인과 **서민**들이 주로 이용하는
소진공, 서금원 등 **공공기관**의
보증부 대출에 대한 **위험가중치**(위험계수)를 **낮추고,**

씬파일러(Thin Filer), **연체이력 차주** 등에 대한
대안신용평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
자본규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* 현재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여신심사 시에만 활용되고 자본비율·충당금 산출 등에는 활용되지 않아, 활성화 유인이 미흡
→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자본비율·충당금 산출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

아울러 지나치게 경직적이거나
해석이 모호했던 **자본규제***를 **개선**하여
금융회사의 **포용금융 지원 여력**을 **확충**하겠습니다.

* ❶ 후순위채의 자본인정액 산정방식 완화(은행)
❷ 해외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요건 합리화(은행)

Ⅳ 마무리말씀

고대 로마의 번영을 뒷받침한
기반 중 하나는 **거대하고 촘촘한 수로**였습니다.

물이 필요한 곳곳에
물길이 끊기지 않도록
충분히 공급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
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.

포용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.

정부는 **포용금융**이라는 **물길이 끊기지 않고**
도움이 절실한 국민의 삶 곳곳에
닿을 수 있도록
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금융권에서도
세심한 관심과 **적극적인 참여**로
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